

영향 예보로의 전환을 통한 기상재해 리스크 경감

설명자료



배포일시	2016. 8. 19.(금) 12:30 (총 2매)	보도시점	즉 시
담당부서	수도권기상청 예보과	담당자	과장 전재목 예보관 윤기한
		전화번호	070-7850-8220 070-7850-8221

최근 무더위 원인과 전망

- ① 평년보다 강하게 발달한 북태평양고기압에 의한 기압계 정체
 - ② 중국 대륙으로부터 가열된 공기 한반도 상공 유입
 - ③ 한반도 주변 고기압 영향권에서 맑은 날씨에 의한 강한 일사 지속
- 당분간 기압계 경향 유지되며 무더위 지속!!



< 최근 한반도 주변 기압계 >

- 현재(19일 12시) 수도권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서울과 경기내륙을 중심으로 낮 최고기온이 35도 안팎으로 오르고 있으며, 습도가 높아 무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고, 밤사이 기온이 25도 이상

유지되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음

- 최근 무더위의 원인은 ①일본 동쪽 해상에 위치한 북태평양고기압이 평년보다 남북으로 강하게 발달하면서 한반도 주변 기압계의 흐름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, ②중국으로부터 평년보다 3~5도 높은 뜨거운 공기가 한반도 상공으로 유입되고 있고, ③한반도가 안정한 고기압 영향권에 놓이게 되면서 구름 발달이 억제되어 강한 일사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임

- 특히, 정체된 기압계 흐름 속에 가열된 지상부근의 공기가 동쪽으로 이동하지 않고 장기간 머물고 있으며, 상층의 찬 공기가 한반도로 남하하지 못하고 북편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무더운 날씨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음

- 북태평양고기압의 세력이 유지되면서 위와 같은 기압계 경향이 다음 주 중반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, 무더운 날씨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, 다음 주 후반부터는 기온이 조금 낮아지겠지만, 불확실성이 크고 평년보다 1~3도 높은 기온이 계속 유지될 것임